

# KRIVET Issue Brief

2021

215호

발행인 류장수 | 발행일 2021년 7월 30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

##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국민역량지수

- 국민의 새로운 역량 개발과 지속적인 기초 역량의 향상은 새로운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.
- 인적 역량의 저장(stock) 및 유량(flow)으로 구성된 한국의 국민역량지수는 51.1점으로, OECD 평균인 51.5점보다 약 0.4점 낮은 수준임.
- 국민역량지수를 구성하는 인적 역량 지수는 54.6점으로 OECD 평균(53.9점)보다 소폭 높은 데 반해 인적 역량 활용 지수는 47.6점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, 역량의 축적보다 역량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함.
- 학습과 경험을 통한 역량습득뿐만 아니라 역량 활용이 일터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와 지원이 필요함.

#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주 | 이 글은 본원의 '송창용 외(2021). 「국가사회 발전 촉진을 위한 국민역량지수 개발」의 일부를 발췌, 재구성한 것임.

국민의 새로운 역량 개발과 지속적인 기초 역량의 향상은 새로운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.

- 가속화되는 기술과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역량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.
  - 국민역량지수를 통해 역량의 총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.
-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국민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성인 역량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국가별 인적자원의 총량과 질을 비교·분석하고자 함.

분석 자료: OECD 국제성인역량진단조사(PIAAC)

- 분석 자료: OECD 1주기(2011년 하반기~2012년 상반기) 국제성인역량조사(PIAAC) 데이터
  - PIAAC은 국가 간 성인능력의 분포(distribution)와 수준을 평가하는 진단조사로 성인들의 수리력, 언어능력,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있으며,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킬의 활용도를 측정
- 분석 대상: OECD 회원국 28개국의 만 16~65세 성인 15만 7,000여 명

### 02 국민역량지수의 정의 및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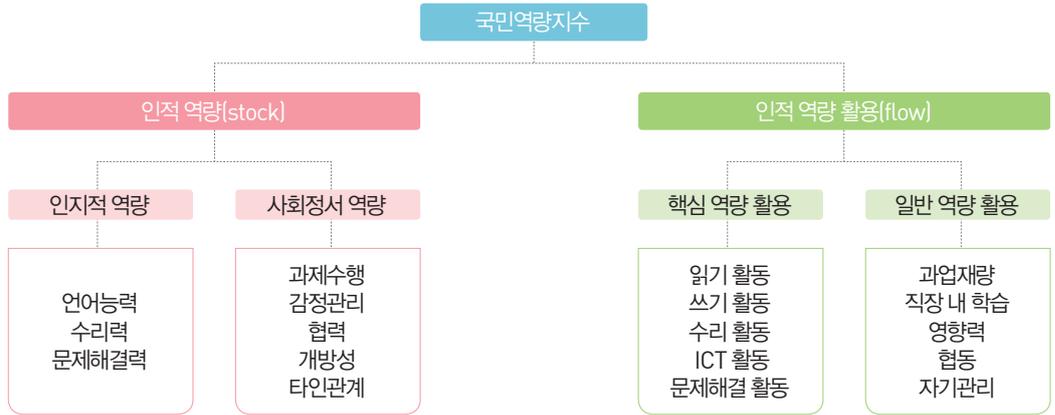
국민역량지수는 개인의 지식(knowledge), 능력(skill), 태도와 가치(attitude and value)가 축적된 인적 역량과 이를 구현하는 활동인 인적 역량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국민의 역량은 미래 세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“국가 인적 역량의 수준”으로, 국가의 인적 역량 수준을 의미하는 인적 역량(stock)과 미래 세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역량 활용(flow)으로 구성되어 있음.



- 인적 역량(stock)은 인지적 역량(cognitive skills)과 사회정서 역량(social and emotional skills)으로 구성되고, 인적 역량 활용(flow)은 핵심 역량 활용과 일반 역량 활용으로 구성됨.
  - 인적 역량(stock)은 일련의 사고 기술로서 숫자, 언어, 추론 능력과 함께 문제해결 능력, 사고 능력 등을 포함하며, 인지적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음.
  - 인적 역량 활용(flow)은 축적된 인적 역량을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으로, 주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핵심 역량 활용과 직장과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반 역량 활용으로 구분하고 있음.

**[주]**  
 1) 1차 PIAAC 조사에서는 사회 정서역량을 조사하지 않아, 국민 역량지수는 인지적 역량(인지적 역량(stock)), 핵심 역량 활용 및 일반 역량 활용(인지적 역량 활용(flow))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.  
 2) 국민역량지수는 각 지표값의 구간별 최대-최소를 이용하여 지표값, 영역값, 종합지수값을 100점 만점으로 산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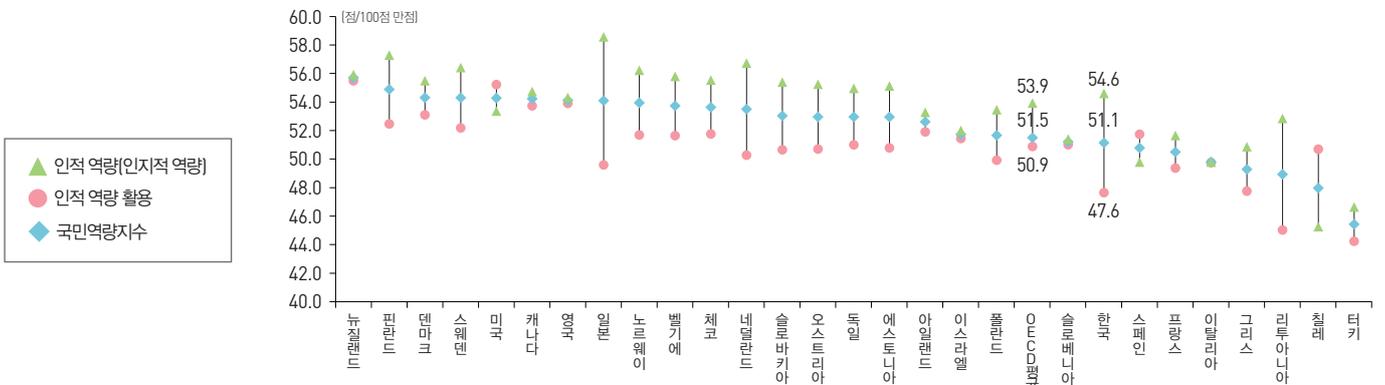


[그림 1] 국민역량지수 개념도

### 03 국민역량지수 및 인적 역량(stock) 지수 · 인적 역량 활용(flow) 지수

| 한국의 국민역량지수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고, 역량의 축적보다 활용이 미흡함.

- 한국의 국민역량지수는 51.1점으로 OECD 평균인 51.5점보다 0.4점 낮은 수준임.
  - 연령대별 한국의 국민역량지수를 살펴보면, 16~34세는 51.7점, 35~54세는 50.3점, 55~65세는 45.0점으로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OECD 평균에 비해 가파르게 역량 수준이 떨어지고 있음.
- 한국의 인적 역량 지수는 54.6점으로 OECD 평균인 53.9점보다 높는데 반해 인적 역량 활용 지수는 47.6점으로, OECD 국가들 중 리투아니아(45.0점), 터키(44.2점)와 함께 하위권에 속함.
  - 연령에 따른 인적 역량 활용 지수를 살펴보면, 특히 한국의 55~64세 인적 역량 활용 지수는 41.3점으로 OECD 국가들(OECD 평균 48.9점) 중 가장 낮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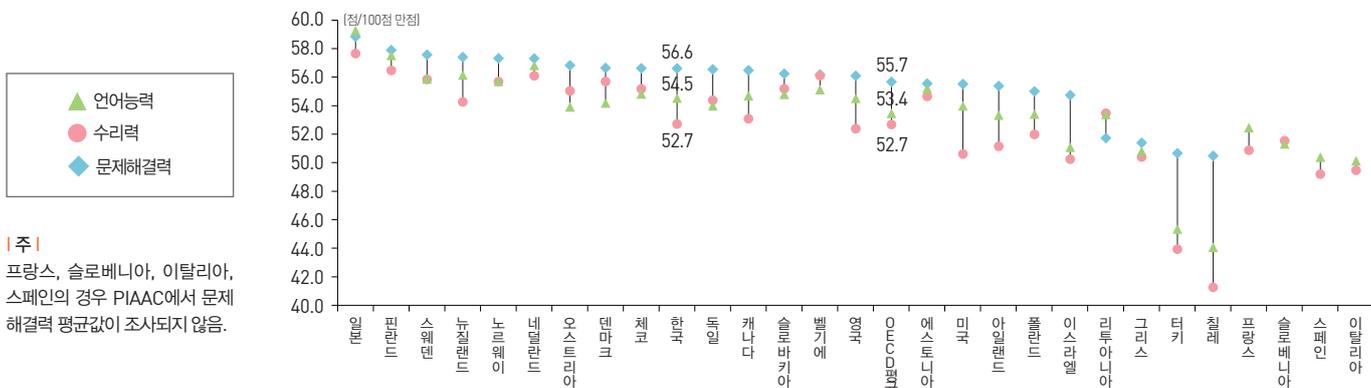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] 국가별 국민역량지수, 인적 역량(stock) 지수, 인적 역량 활용(flow) 지수 비교

04 인적 역량 및 인적 자원 활용 수준

인 지적 역량을 구성하는 언어능력, 수리력, 문제해결력의 한국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음.

- 한국의 경우 인 지적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언어능력(54.5점)과 수리력(52.7점)은 문제해결력(56.6점)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, OECD 평균(언어능력 53.4점, 수리력 52.7점)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임.
  - 문제해결력의 OECD 평균은 55.7점으로, 한국은 이보다 약 0.9점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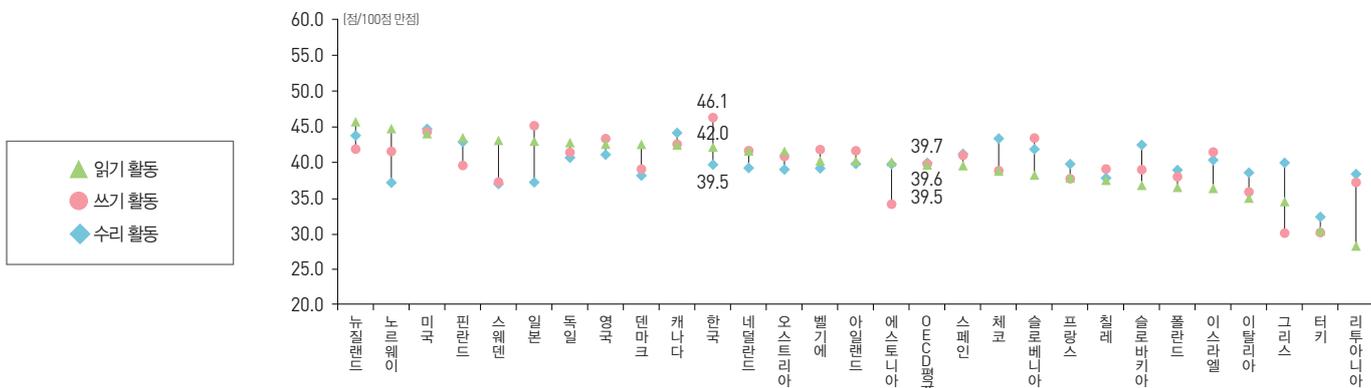


주 | 프랑스, 슬로베니아, 이탈리아, 스페인의 경우 PIAAC에서 문제해결력 평균값이 조사되지 않음.

[그림3] 국가별 인 지적 역량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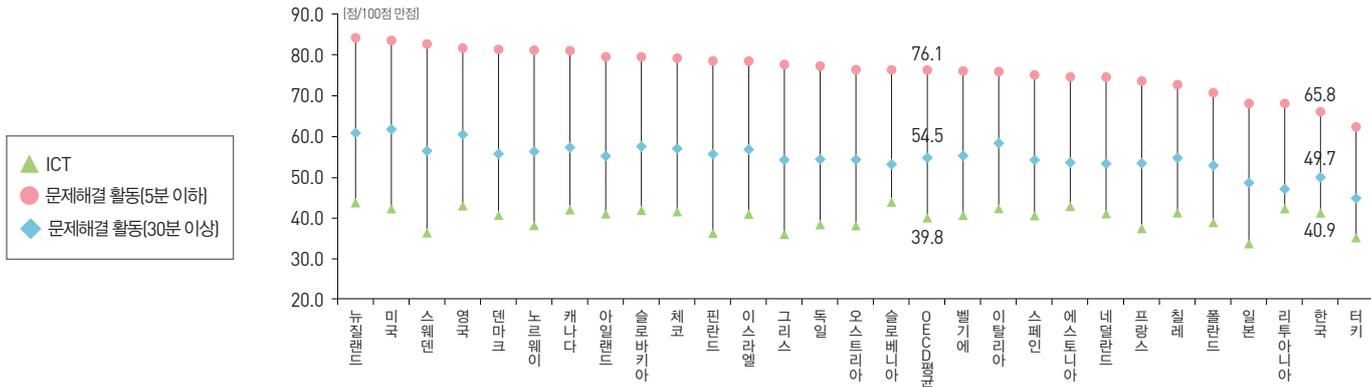
한국의 핵심 역량 활용 지수는 47.3점으로 OECD 평균(48.2점)보다 낮게 나타남.

- 한국의 경우 핵심 역량 활용 지수 중 읽기 활동 42.0점, 쓰기 활동 46.1점, 수리 활동 39.5점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쓰기 활동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.



[그림 4] 국가별 핵심 역량 활용 비교: 읽기 활동, 쓰기 활동, 수리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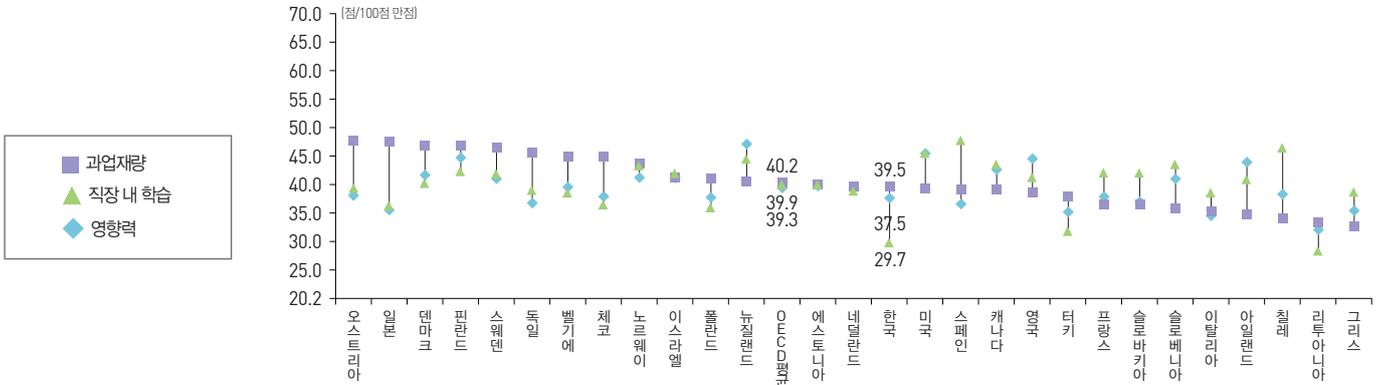
- 핵심 역량 활용 지수 중 한국의 ICT 활동 점수는 40.9점으로 OECD 평균(39.8점)보다 높지만, 5분 이하 및 30분 이상의 문제해결 활동은 각각 65.8점, 49.7점으로 OECD 평균(76.1점, 54.5점)보다 낮게 나타나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함.



[그림 5] 국가별 핵심 역량 활용 비교: ICT 활동, 문제해결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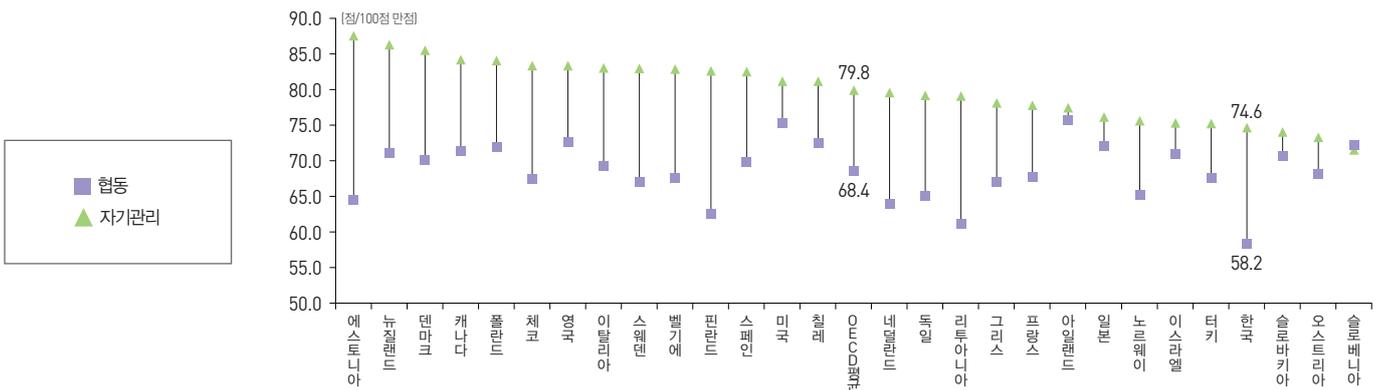
한국의 일반 역량 활용 지수는 47.9점으로 OECD 평균(53.5점)보다 낮게 나타남.

- 한국의 경우 일반 역량 활용을 구성하는 지표 중 과업재량 39.5점, 직장 내 학습 29.7점, 영향력 37.5점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, 특히 직장 내 학습은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.



[그림 6] 국가별 일반 역량 활용 비교: 과업재량, 직장 내 학습, 영향력

- 일반 역량 활용 지수 중 한국의 협동 점수는 58.2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, 자기관리 점수는 74.6점으로 슬로베니아, 오스트리아, 슬로바키아에 이어 낮은 수준임.



[그림 7] 국가별 일반 역량 활용 비교: 협동, 자기관리

05 시사점

- 한국의 인적 역량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데 반해 인적 역량 활용 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, 한국의 국민역량은 역량의 축적보다 역량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- 한국의 국민역량지수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급격한 기술 진보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세대 간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가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성인 학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.
- 국민의 역량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과 경험을 통한 역량 습득과 함께 역량 활용이 일터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와 지원이 필요함.
- 국가적 차원에서 OECD 성인역량조사(PIAAC)를 기반으로 국민역량지수를 측정함으로써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총량과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, 성인의 평생학습 시스템 정책의 방향과 목표, 과제 설정 및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.

송 창 용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)  
백 원 영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)